

베트남 - 쿼터 프리와 컨트리 리스크의 분산분으로 활기

세계무역기구(WTO) 가맹국을 대상으로 미국이나 EU 등의 쿼터가 철폐되면서 미가맹국인 베트남의 거취가 주목을 받고 있다. 2005년 1월부터 새로운 섬유 무역 체제가 시작된 후로, 베트남은 대체로 큰 변동이 없으면서도 중국으로부터의 섬유품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미국과 EU가 경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을 대체할 만한 리스크 분산처로서의 베트남이 급히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베트남의 2004년 섬유 제품 수출 실적은 전년과 비교하여 17%가 증가한 43억 1,600만 US 달러로서, 베트남 전체 수출 실적 260억 300만 US 달러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유 수출이 56억 6,600만 US 달러로 다음가는 제2의 수출 품목으로 되어 있다.

섬유 제품 수출은 봉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베트남의 제일 큰 수출국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2004년에는 63%로서 거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은 2003년부터 쿼터제가 실시되기 전에 수출 실적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2002년에는 9억 7,500만 US 달러 실적으로서 2001년의 4,700만 달러의 20배나 되며, 2003년에는 19억 7,300만 달러로 전년 실적의 두 배 정도로 급증하였다. 2004년에는 2년간의 놀랄 만한 급증세로 중국으로 수출이 일부 기울어 증가세가 염려스러웠으나 27억 1,900만 US 달러 수출로 적지 않은 38%의 증가를 보였다.

이와 같은 베트남에 대하여 EU나 캐나다는 WTO 가맹과는 무관하게 쿼터를 2005년부터 철폐하여 미국만이 쿼터를 유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베트남

은 미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급증하자 미국으로부터의 발주가 일부 중국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미국 등 수입국에서는 섬유 제품의 수출이 중국 한 나라에 지나치게 집중되면서 컨트리 리스크(country risk) 등의 경계감에서 베트남을 전략적인 생산 거점으로 살리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베트남의 섬유 산업은 소재나 부속품의 생산이 아직 크게 부족하여 일본, 한국, 대만이나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베트남은 ① 젊은이들이 교육 수준이 비교적 높으며, 손 재주가 좋아서 복잡하고 어려운 봉제를 잘 해낸다 ② 노동임이나 봉제 가공임이 싸다 ③ 정치, 경제, 종교, 외환 등이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한편 중국은 ① 미국이나 유럽의 세이프 가드 발동 ② 인민위엔의 절상 ③ 전반적인 전력 부족 ④ 배타적인 중화 사상의 발동 등의 불안 요소가 따라다닌다. 이와 같은 중국의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하여 베트남이 기대되고 있다.

현 상태에서는 수입국들이 베트남으로 수입을 옮기려는 움직임은 아직 적극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미국이 세이프 가드를 발동하여 중국의 대미 수출이 사실상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사태는 크게 급변할 수도 있다.

베트남의 대일본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도 쿼터 프리를 고려하면 주목할만하다. 중국의 봉제 공장이 소로트이면서도 품질, 납기, 가격이 엄격한 일본으로의 수출을 기피하려는 사태를 염두에 둘 때, 베트남이 대안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일본의 상사들은 베트남과의 거래를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베트남이 2002년~2003년에 집중적으로 미국에 수출하려다가

제동이 걸렸던 경험을 베트남의 대일 봉제 공장들은 잊지 않고 있다. 2006년에 예정대로 베트남이 WTO에 가맹되어 대미 쿼터가 철폐되면, 다시 미국으로 수출이 집중되면서 이러한 쓰라린 경험이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다. 그만큼 베트남의 봉제 공장들은 수입자와 서로 믿을만한 관계를 구축하거나 자기 공장을 기준으로 안전하게 판단하는 데 역점을 두려는 경향이 강하다.

미쓰이(三井)물산은 베트남 섬유·의류 공단 ‘VINATEX’ 산하의 3개 공장에서 남성용 슈트를 연간 50만 셋(sets) 생산하던 것을 5개 공장으로 생산을 확대하였다. 이토추 (伊藤忠)상사도 베트남에서 레이디스 유니폼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2005년 8월부터는 슈트도 추가하여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모두 중국에만 너무 치우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이다.

NI데이진(帝人)상사는 일본으로의 수출을 늘리기 위하여 팬츠 중심의 직물 캐주얼 웨어를 주력으로 하면서 동시에 대만으로의 수출도 늘리겠다고 한다. NI데이진상사가 100% 출자한 직영 봉제 공장인 패션 포스 제1공장(FF1)은 나이키 브랜드의 스포츠 웨어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나이키의 비율을 서서히 올려 지금은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쿼터와는 관계가 없는, 일본이나 기타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 비율이 2004년에 50%이던 것을 2005년에는 60%로 늘리려하고 있다.

대일 수출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스미토모 상사는, 베트남이 WTO에 가맹하면 미국으로의 수출이 강화될 경우를 고려하여 베트남에 있는 3개 자사 공장을 강화함으로써 베트남에서의 대일 수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세 개 공장 중 하나인 서미트 가먼트 사이곤(Summit Garment Saigon)에서는 제2공장을 설립하거나 기존 공장을 증설하여 생산 능력을 지금보다도 50% 확대할 예정으로 방법·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이 공장은 백화점과 셀렉트

숍에서 판매할 감성이 높은 캐주얼 셔츠를 생산하고 있다. ♣